

조선시대 『新編婦人大全良方』의 서지학적 고찰

A Bibliographical Study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in the Joseon Dynasty

홍 란 영 (Hong, Ran-Young)*

◁ 목 차 ▷

- | | |
|--------------------------|------------------------|
| 1. 緒論 | 4. 조선 婦人科 醫書 체제 영향과 변화 |
| 2. 『新編婦人大全良方』의 판본과 서지특징 | 5. 結 論 |
| 3. 『新編婦人大全良方』 체제의 특징과 수용 | <참고문헌> |

< 초 록 >

송나라 陳自明의 『新編婦人大全良方』은 송나라 이전의 의학을 정리한 婦人科 전문의서이다. 통속적인 명칭은 『婦人大全良方』이다. 『婦人大全』·『婦人良方』은 『婦人大全良方』, 즉 『新編婦人大全良方』의 약식서명으로 과거나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婦人大全良方』은 진자명이 처음 저술하였을 때 書名이지만 그 후에 수정하여 『新編婦人大全良方』이라 명명한 것으로 추측되며 元나라 勤有書堂에서 간행되었다.

고려시대에 元나라 근유서당본이 수입되었고, 조선에서는 甲辰字로 몇 차례 간행되었다. 이후 이 책은 조선 의학의 婦人科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 간행된 『新編婦人大全良方』의 판본과 서지특징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서지학적으로 조선 醫書의 가치와 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에 간행된 종합의서와 『新編婦人大全良方』의 목차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조선 의학에서 변화되는 부인과 목차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조선에서 간행된 醫書 『新編婦人大全良方』이 조선 의서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新編婦人大全良方』의 목차구성은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은 조선에서 부인과 전문서적으로서 의학자들이 오랫동안 활용하였다.

15세기에 간행된 『鄕藥集成方』과 『醫方類聚』는 『新編婦人大全良方』의 목차를 그대로 수용하여 부인과 체제를 구성하였다. 각각 서적의 특징에 맞게 목차를 구성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어 조선 의학자들의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의학의 특징을 반영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한편 16세기 말에 간행된 종합의서인 『醫林撮要』에서는 15세기에 형성된 부인과 체제가 명나라 의학체제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의 내용구성에서 熊宗立이 補遺한 『婦人良方補遺大全』을 인용한 사실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醫林撮要』의 明醫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hong2698@hanmail.net)

접수일: 2015년 6월 10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化 된 목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선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정한 부인과 목차를 구성하였다.

비록 16세기 조선의 종합의서 부인과 체제는 명나라 의학의 영향하에 변화하고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였지만 여전히 진자명의 원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婦人良方補遺大全』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新編婦人大全良方』의 활용과 가치는 조선전기 의학에서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要語: 『新編婦人大全良方』, 『婦人大全良方』, 『婦人大全』, 『婦人良方』, 陳自明, 부인과

<ABSTRACT>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新編婦人大全良方)』 of Chen Ziming(陳自明) in the Song Dynasty, examined in this thesis, is the professional medical book of gynecology, summarizing the medicine before the Song Dynasty. 『*Furen daquan liangfang*(婦人大全良方)』 · 『*Furen daquan*(婦人大全)』 · 『*Furen liangfang*(婦人良方)』 is the initials signature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and is generally used in the past and at present. 『*Furen daquan liangfang*』 was the signature when Chen Ziming first wrote, but was presumed to be named as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later with correction, and it was issued at the edition of Qingyou Hall(勤有書堂) in Yuan dynasty.

In Koryo dynasty,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published in Yuan dynasty was imported, and published several times as Gapjinja(甲辰字) in Joseon dynasty.

The value and position of Joseon Gapjinjabon could be identified bibliographically in East Asia by examining the woodblock-printed book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published at early Joseon period. In addition, features of the table of contents on gynecology changed in Joseon medicine were examined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table of contents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and comprehensive medical book published in early Joseon period.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and 『*Euibangyuchi*(醫方類聚)』, published in the 15th century, accepted the table of contents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as it is to form the system of gynecology. It has table of contents suitable to features of each book but with some changes. It also reflected the features of Joseon medicine based on the medical experience of Joseon medical scientists.

In the mean time, 『*Ui Rim Chual-yo*(醫林撮要)』, the comprehensive medical book published in the end of the 16th century, showed that the system of gynecology established in the 15th century, was changed into the medical system of Ming dynasty. In addition, the fact that contents of 『*DongUiBoGam*(東醫寶鑑)』 quoted the 『*Furen liangfang buyi daquan*(婦人良方補遺大全)』 possessed by Xiong Zongli(熊宗立), supported that more. 『*DongUiBoGam*』 established the table of contents of gynecology reflecting the features of Joseon, one step further from those of Ming medicine system of 『*Ui Rim Chual-yo*』.

While the gynecology system of comprehensive medical book in the 16th century established a changed and new area under the influence of medical system of Ming dynasty, it still accepted the 『*Furen liangfang buyi daquan*』 that maintained the original contents of Chen Ziming, which means that the application and the value of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were great in the medical system of early Joseon dynasty.

Key words: 『*Xinbian furen daquan liangfang*』, 『*Furen daquan liangfang*』, 『*Furen daquan*』, 『*Furen liangfang*』, Chen Ziming, gynecology

1. 緒論

조선 의학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의학론을 도입하였으며,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져온 향약 연구로 발전 성장하여 왔다.¹⁾ 婦人科 또한 중국 의학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 의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변화 발전하였다. 醫學書에서 婦人科는 전문서도 많지만 대부분 종합의서의 일부로 편성된 경우가 더 많다. 조선에서는 송나라 진자명의 『신편부인대전양방』이 오랫동안 의학자들에게 부인과 전문서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신편부인대전양방』과 조선의 대표 의서의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 부인과의 의학적 특징과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의서의 목차구성 전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목차에서 드러나는 구성체제의 성격과 의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비교 검토는 의서 전체 목차구성의 특징을 연구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이러한 특징들의 변화가 결국 조선 의학의 전반적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시기의 의학성과를 정리한 조선 전기 대표 종합의서를 위주로 한 婦人科 항목에 대한 비교 검토 하였다. 조선 후기 의서들은 『東醫寶鑑』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하한선을 『동의보감』으로 하였다.

한의학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특히 婦人科 분야는 한의학·역사학·서지학·국어학·교육학 등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婦人科 연구는 질병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거나, 단독 서적 연구²⁾에서 한 분야로 언급하는 정도이다. 주로 한의학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역사학이나 서지학·교육학·국어학 등에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김두중, 『韓國醫學史』(서울: 탐구당, 1998). ; 김기욱·김남일·김도훈·김용진·김홍균·김훈·맹웅재·박경남·박현국·방정균·신영일·안상우·엄석기·은석민·이병욱·차웅석, 『韓醫學通史』(서울: 대성의학사, 2006).

2)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87집(1999. 6).

이 논문에서는 조선의 의학에서 영향을 미친 갑진자본 『新編婦人大全良方』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과 국내 및 해외 판본 조사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으로 그 새로운 면모와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동시에 조선 의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는데 근거가 되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특징을 살펴보고, 15세기의 대표적인 종합의서인 『鄉藥集成方』·『醫方類聚』의 부인과 목차와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婦人科에 미친 영향과 조선의서에 나타난 부인과 목차구성의 특징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또한 16세기의 대표적인 종합의서인 『醫林撮要』와 『東醫寶鑑』과의 검토를 통해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영향, 부인과 항목의 독자적 변화상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新編婦人大全良方』의 판본과 서지특징

2.1 陳自明의 『新編婦人大全良方』 계통과 판본

1237년 南宋 陳自明이 저술한 全24卷으로 구성된 婦人科 전문의서인 『부인대전양방』은 진자명이 저술한 초간본의 書名이지만 현존하지 않고, 그 후 간행된 수정본 『新編婦人大全良方』이라는 서명으로 현존하고 있다. 현재는 수정본이면서 原刻本人인 『신편대전부인양방』이 『부인대전양방』이라 통용되고 있다.

『부인대전양방』의 판본은 原刻本·補遺本·校注本으로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原刻本은 진자명의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수정본을 원각본으로 지칭하고 있다. 補遺本은 명나라 熊宗立이 주석을 달아 『婦人良方補遺大全』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한 것이며, 校注本은 1529년 명나라 薛己가 校注하여 엮은 『校注婦人良方』을 지칭한다.³⁾

중국에서는 진자명의 原刻本을 다시 元·勤有書堂本, 清代 『四庫全書』本,

3) 진자명 저,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역, 『부인대전양방』 (서울: 광산출판사, 2003).

日本抄本으로 분류하고 있다.⁴⁾ 元·勤有書堂本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237년 이후 원나라 때 근유서당에서 『新編婦人大全良方』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이 간본을 저본으로 清代 1784년(乾隆 49)에 抄한 四庫全書本은 『부인대전양방』이라는 서명으로 되어 있다. 日本抄本은 조선에서 근유서당본을 저본으로 甲辰字로 간행한 것을 日本抄本으로 분류하여 현재 원각본을 세 가지 계열로 나누고 있다.

『부인대전양방』 중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간본은 수정본인 元나라 勤有書堂本으로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 보관되어 있다. 中國中醫學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 劉洋의 석사학위논문 『《婦人大全良方》의 文獻研究』⁵⁾에서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된 근유서당본의 서지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劉洋의 논문에서 밝힌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된 근유서당본의 서지사항과 현존상태이다.

이 관본은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全12冊이고 卷首에 自序가 있으며 題名은 없다. 서문 말미에 “嘉熙元年 8月 良日에 建康府 明道書院 醫諭 臨川 陳自明 良父序”라고 쓰여 있다. 서문 다음에 新編婦人大全良方綱目이 있고 8門으로 나뉜다. 門 上단에 花魚尾가 있고 뒤에 目錄이 있다. 門 上단에 花魚尾가 있고 目錄의 말미에 “근유서당간행”이라 기록되어 있다. 目錄 뒤에 “辨識修製藥物法度”가 있다. 본문은 門 上단 卷端 題名 위에 花魚尾가 있고 卷1 卷端 題名 위에 “新編婦人大全良方卷之一”, 아래에 “醫學臨川陳自明良甫編注”가 있다. 나머지 각권 卷端 題名은 단지 “新編婦人大全良方”과 권수가 있을 뿐이다. 본문은 每半葉, 12行 行22字, 上下單邊 左右雙邊, 黑口, 雙魚尾이다. 上下魚尾 사이에 “大全良方”과 권수를 새겼고, 書口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고, 권말에 後序는 없다.

이 관본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文字도 工整(반듯하고 또박또박함)하다. 다만 필적이 不清하고 새길 때의 실수와 모든 단이 脫落되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鉤藤散”이 “鈞藤散”으로 잘못 새겨지고, “憎寒發熱”이 “增寒發熱”로 잘못 새겨졌다. 제8권 제10론에서 “暑症也”에서 “精思而”까지 25字가 脫漏되었다. 제10권 7론에서 “氣質生成章”의 대부분과 제8론 전체, 제12권 16론

4) 劉洋, “『婦人大全良方』의 文獻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國中醫學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 2004), 22.

5) 劉洋(2004), 21.

모든 전문이 탈락되어 있다. 脫漏된 부분은 모두 空白紙로 하였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이르기를 “勤有書堂에서 編刊하였고 더욱이 自明의 원본이다. 앞에 嘉熙元年自序가 있다.” 하였다.⁶⁾

勤有書堂본의 서지사항은 「全12册, 半郭 19.6 × 12.9cm, 半葉12行22字, 黑口, 左右雙邊, 雙魚尾.」⁷⁾이다. 인용문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이 판본의 보존상태는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24권 12책을 갖추고 있지만 본문의 일부가 탈락되어 완질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오탈자와 모든 단이 탈락된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명에 “新編”이라는 용어가 근유서당본이나 갑진자본에 똑같이 붙어 있는 것은 위의 근유서당본이 고려 때 유입되었다가 조선에서 갑진자로 다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調經門”이 2행을 차지하며 大字로 판각되어 있고, 조경문에 대한 설명이 大字 밑에 2행에 걸쳐 6~7句씩 나누어져 있다. 글자가 工整하고 힘이 있지만, 행간과 자간의 여백이 조선본에 비해 상당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가독성이 조선본보다 떨어진다. 위의 劉洋의 논문 인용문에서 탈락된 부분은 ‘空白紙’로 배접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사진 속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줄 맨끝자 ‘血’ 다음부터 탈락된 글자를 空白紙로 배접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該版本藏于國家圖書館. 全 12册, 卷首爲自序, 無題名, 序末題. “嘉熙元年八月良日建康府明道書院醫諭臨川陳自明良父序.” 序后爲新編婦人大全良方綱目, 分8門, 每門上均有花魚尾, 后接目錄, 每卷上均有花魚尾, 目錄的末尾改有“勤有書堂刊行”, 目錄后爲“辨識修制藥物法度.” 正文每卷卷端題名上均有花魚尾, 卷一卷端題名上爲“新編婦人大全良方卷之一” 下爲“醫學臨川陳自明良甫編注.” 余各卷卷端題名僅有“新編婦人大全良方”及卷數. 正文每半頁 12行, 行22字, 上下單邊, 左右雙邊, 黑口, 雙魚尾, 上下魚尾間刻“大全良方”及卷數, 書口下端寫有頁碼, 卷末無后序.

該版本保存較好, 文字工整, 但間有字迹不清, 刻誤和整段脫落的現象. 例如將“鉤藤散”誤刻爲“釣藤散”, “憎寒發熱”誤刻爲“增寒發熱”, 第八卷十論, 從“暑証也”至“精思而”, 脫漏二十五字. 第十卷七論“氣質生成章”的大部分和整個第八論、第十二卷十六論, 均全文脫. 脫漏的部分均作空白紙. 『四庫全書總目·提要』謂: “是編刊于勤有書堂, 猶爲自明原本. 前有嘉熙元年自序.”

7) 全12册, 半郭 19.6 × 12.9cm, 半葉12行, 22字, 黑口, 左右雙邊, 雙魚尾(劉洋(2004), 21).

2.2 갑진자본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소장처

2.2.1 국내 소장 甲辰字本 『新編婦人大全良方』

조선 갑진자본의 정식 書名은 “新編婦人大全良方”이며, 24卷 9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행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갑진자가 만들어진 1484년(성종 15)부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미키 사카에는 『朝鮮醫書誌』에서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신편부인대전양방』이 중종에서 명종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1> 『新編婦人大全良方』의 국내 소장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기관
1	新編婦人大全良方	陳自明 (宋) 撰	金屬活字 本 (甲辰字)	[刊寫地 未詳]: [刊寫者 未詳]: [中宗-宣祖初]刊	線裝 5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0.8 × 15.1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28.8 × 19.1cm	表題: 婦人大全 版心題: 婦人良方 各張表面에 莊子內篇을 필사하였음. 楮紙 불완전내용: 卷10, 胎教門: 妊娠總論. --卷11, 脈例. --卷12, 妊娠疾病門. --卷13, 妊娠數墮胎方論. --卷14, 妊娠中風方論	성암고서 박물관
2	新編婦人大全良方 (綱目)	陳自明 (宋) 編	金屬活字 本 (甲辰字)	[刊寫地 未詳]: [刊寫者 未詳]: [刊寫年未詳]	1冊: 四周單邊 半郭 20.3 × 13.8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9.3 × 20.3cm	表題: 婦人大全 版心題: 婦人良方 刊寫年: [明宗年間]-正德嘉靖間鑄字印刷藥精紙	충남대학 교도서관

국내에는 현재 성암고서박물관, 충남대학교에 갑진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현재 실물 확인이 불가능하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해서 서지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대본⁸⁾은 현재 1冊이 남아 있으며, 표제를 ‘新編婦人大全’으로 표기하여 원표지 위에 개장하였

고 원표지의 표제는 ‘婦人大全目錄’이라 되어 있다. 내용 또한 8강목·일부가 빠진 전체 목록·‘辨識修製藥物法度’의 일부내용이 남아 있다.

2.2.2 일본 소장 甲辰字本 『新編婦人大全良方』

미키 사카에의 『朝鮮醫書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갑진자본 『신편부인대전양방』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⁹⁾ 日本 宮内廳 書陵部·東洋文庫·大阪(오사카)府立圖書館 石崎文庫이다.¹⁰⁾

<표 2>에서 서릉부분은 중국·한국·일본에 남아있는 진자명의 『부인대전양방』 원본 중에서 원문 전체가 남아 있는 유일한 판본이다. 이것은 多紀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24권말 뒤표지 안쪽에 多紀元堅이 기입한 기록에서 ‘(내 것은) 首尾가 完好하니(완질의 형태이니) 실로 얻기 어려운 秘笈(귀하여 고이 간직할 전적)이니 어찌 보배로이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¹⁾라 하고 있다. 이 기록은 元堅이 소유한 『부인양방』은 首尾가 完好한 완질 형태의 간본을 의미한다.¹²⁾

-
- 8) 충남대학교에 남아 있는 갑진자본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는 2종으로 나타나는데 형태사항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실물을 확인한 결과 이는 동일본이 중복 기재된 경우이다. 현재 PDF파일 형태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대본의 장정형태는 線裝인데 본 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장정이 호절장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 9) 미키 사카에는 『朝鮮醫書誌』 ‘新編婦人大全良方’條에서 懷仙閣本이 산실되었기 때문에 갑진자본의 소장처는 日本 宮内廳 書陵部·東洋文庫·大阪(오사카)府立圖書館 3곳이라 언급하고 있다. 미키 사카에는 森立之·澀江道純 等 同撰 『經籍訪古志』 補遺編에 언급하고 있는 24권의 『新編婦人大全良方』은 서릉부분이며, 懷仙閣 또한 이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養安院藏書目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懷仙閣은 曲直瀬家を 가르키는 말로써 5대손 正珪의 別號가 ‘懷仙樓’였고, 正珪가 본인이 수집한 장서 목록을 ‘懷仙樓書目’이다. 町泉壽郎의 논문 참조.
- 10) 궁내청 서릉부분은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宮内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의 서지사항을 목록화 하여 정리하였다. 동양문고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riks/>)의 서지사항을 정리하였다.
- 11) …(중략)… (余)首尾完好, 實爲難得之秘笈, 豈可不寶愛耶, 天保三年(1832)玄默執徐三月, 丹波元堅識。『新編婦人大全良方』宮内廳 書陵部本.
- 12) 多紀家는 1772~1780년(安永年間)에 醫學館을 창설하였고, 1792년(寛政 4)에 에도幕府 直轄이 되었다. 醫學館 藏書는 메이지 유신 후 명치정부(1868~1911)에 접수된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었으며, 그 중에서 宋元版·朝鮮本·古鈔本 등의 善本은 宮内廳 書陵部로

<표 2> 일본 소장 甲辰字本 서지사항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기관
1	陳自明 (宋) 編註	甲辰字多 混補字版	[宣祖前 期]印	線裝 24卷9冊: 四周單 邊, 半郭 21.2 × 15cm. 有界, 半葉12行19字, 註 雙行, 內向3葉花紋魚 尾. 28.8 × 18.3cm. 楮紙.	表題: 婦人良方 版心題: 婦人良方 書根題: 良方 序: 峇嘉熙元年(1237)八月良月建 康府明道書院醫諭臨川陳自明良 文序(日人筆書) 墨書識記: 天保三年玄默執徐(壬 辰, 1832)三月丹波元堅識(日人) 印: '多紀氏藏書印', '竹內氏藏書 印', '東井文庫', '江戶醫學藏書之 記', '帝國博物館圖書', '宮內省圖 書印', '元堅私印', '莚廷'. 分類: 558-5	日本 宮內聽 書陵部
2	陳自明 (宋) 編註	金屬活字 本 (甲辰字)		線裝 20卷5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0.5 × 14.4cm. 有界, 半葉12 行19字, 註雙行, 上下大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8.3 × 18.7cm.	版心題: 婦人良方 卷首附錄: 辨識修製藥物法度 印: 武縣庫籍, 茂紀: 在山樓蒐書 之一 藏書記: 前間氏所藏	東洋文庫

다음은 동양문고에 소장된 『신편부인대전양방』이다. 이 간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센터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동양문고본은 충남대·서릉부본과는 형태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卷 5冊이며, 16~20卷이 결락되어 있다. 四周雙邊, 半郭 20.5 × 14.4cm, 有界, 半葉12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로 형태적으로 조선 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확히 간행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동양문고본은 인쇄된 상태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字劃도 均整하여 1484년 갑진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간행된 갑진자 초기본으로 여겨진다. 版心題는 ‘婦人良方’이고 卷首에 ‘辨識修製藥物法度’를 附錄하고 있다. 「武縣庫籍」, 「茂紀」, 「在山樓蒐書之一」, 「東洋文庫」라는 印記가 있으며, 「前間氏所藏」이라는 藏書記도 있다.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町泉壽郎, “曲直瀬養安院家と朝鮮本醫書,” 『日本思想文化研究』 第2卷 第1号(2009).

2.2.3 마이크로필름본

국내에는 갑진자본의 완질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본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본은 일본의 궁내청 서릉부본을 복사한 것이고, 이 마이크로필름본을 다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복사하여 현재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¹³⁾에서도 일본 서릉부본을 전산화하여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쏘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표 3> 마이크로필름본 소장처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기관
1	新編婦人大全良方	陳自明	筆寫影印本 (日本)	東京: 宮内聽書陵部, 1998	마이크로필름 릴1 개: 양화: 35mm	新編婦人大全良方は 刊記未詳으로 판종은 甲辰字本임. 原本版事項: 甲辰字本 原本形態事項: 1種9冊 원본소장기관: 日本宮内聽書陵部 1998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한 자료 (M古3-1998-4)	국립중앙도서관
2	(新編) 婦人大全良方	陳自明 (宋) 撰	筆寫影印本	城南: 韓國學中央研究院, 1980	마이크로필름 릴1 개: 음화: 35mm	9冊 원본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2.3 필사본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소장처

2.3.1 국내 소장 필사본

<표 4>의 필사본 ‘婦人良方’은 명나라 薛己의 『校注婦人良方』의 내용을 필자의 필요에 따라 抄한 寫本이다. ‘求嗣門, 胎教門, 候胎門, 妊娠疾病門, 坐月門,

13) 한의고전명저총서 DB 서비스. <<http://jisik.kiom.re.kr/>>.

産難門' 6門¹⁴⁾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표지명은 '內經'으로 되어 있어 자칫 『황제내경』에 관한 의서로 오인하기 쉽다. 표지 우측상단에 '妊娠'라 적혀있다. 이는 책의 내용이 임신관련 사항만을 모아 정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권수제는 '婦人良方'이며 주로 『부인대전양방』의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찰공책지에 정자로 단정하게 필사되었으나 필사한 시기와 필사자는 알 수 없다. 다만 1529년 간행된 『校注婦人良方』 중에서 산부인과 내용을 필사하였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맨 앞에 '附錄'을 삽입하여 '竇禹鈞·張慶·馮商·馬默·時邦美·袁韶·馬涓'이 求嗣를 하게 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국내 소장 필사본

서명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기관
婦人良方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81張: 四周雙邊 半郭 21.5 × 14.8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33.1 × 20.4cm	表題: 內經	국립중앙 도서관

2.3.2 해외 소장 필사본

갑진자 抄本은 현재 日本 내각문고¹⁵⁾와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寫本의 형태로 9冊이 소장되어 있다.¹⁶⁾ 미키 사카에는 『朝鮮醫書誌』 「新編婦人大全良方」

- 14) 6門 중에서 '候胎門'은 교주본에서 胎教門과 妊娠門 사이에 추가된 綱門名이다. 안상우, 『고의서산책239』, 『민족신문』, 2005년 4월 1일자 참조.
- 15) 多紀家は 甲辰字本과 抄本을 모두 醫學館에 소장하고 있었다. 에도막부, 메이지유신을 거친 후 명치정부 때에 의서관 장서가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었다. 갑진자활자본은 궁내청 서릉부로 이관되었으며, 抄本은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 16) 大版(오사카)부립도서관의 소장본은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 소장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三木榮, 『朝鮮醫書誌』, 「新編婦人大全良方」條의 내용과 眞柳誠·王鐵策, 「日本に現存する中國散逸古医籍の分析」의 내용을 기반으로 大版(오사카)부립도서관에 갑진자본 1冊이 소장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홍란영, “조선전기 『新編婦人大全良方』 간행과 醫學全書 婦人科의 항목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5).

條에서 內閣文庫에 文化 2年(1805)에 조선활자본에서 抄한 寫本이 소장되어 있으며 多紀元簡의 手跋이 붙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키 사카에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은 24卷 9冊, 甲辰字 抄本으로 일본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楊守敬에 의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현재는 臺灣 國立古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표 5> 해외 所藏 寫本 『新編婦人大全良方』 서지사항

	저자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소장기관
1	陳自明 (宋)	寫本		9冊	文化 2年 舊藏者: 醫學館 請求番號: 303-0248	國立公文書 館 內閣文庫 (日本)
2	陳自明 撰 (宋)	寫本		24卷 9冊: 四周雙邊, 세로 31.7×가로 21.3cm, 有界, 12行19字, 版心白口, 雙花魚尾, 魚尾사이에 '婦人良方'이라 판각되어 있다. 卷과 張次를 墨書하다.	藍色厚手表紙 日本傳鈔朝鮮活字本 日本文化乙亥小島質, 文政辛巳邱田章朱筆手校, 清宣統庚戌楊守敬手書題識	國立古宮博 物院(臺灣)

3. 『新編婦人大全良方』 체제의 특징과 수용

3.1 『新編婦人大全良方』의 목차 특징

진자명은 『신편부인대전양방』에서 ‘調經門, 衆疾門, 求嗣門, 胎教門, 妊娠門, 坐月門, 產難門, 產後門’ 8綱目으로 나누고, 260여 論을 수록하고 있다. 첫 綱目인 ‘調經門’은 ‘여성을 진료할 때는 먼저 월경을 고르게 하여야 하므로 처음에 두었다.’¹⁷⁾ 라고 하여 생리적·병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月經을 강조하였다.¹⁸⁾ 두 번째는 ‘衆疾

또한 윤병태의 『韓國古書綜合目錄』(1968)에도 갑진자본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일본 소장처를 ‘日宮書’는 24卷 9冊, ‘大阪市圖’는 1~8卷 1冊으로 기재하고 있다.

17) ‘凡醫婦人 先須調經 故以爲初’ 『新編婦人大全良方』 목차, 일본 궁내청 서릉부분. 중앙국립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하고 있음.

門'으로 '經脈이 고르지 않으면 衆疾이 생기므로 그 다음에 두었다.'¹⁹⁾라고 하였다. 衆疾門의 일반질병은 '月經不調'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질병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極一方總論'²⁰⁾에서는 여성의 고유 질병과 남녀 공통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였다.²¹⁾ 세 번째 강목인 '求嗣門'부터 '胎教門, 妊娠門, 坐月門, 產難門, 產後門'은 당시 여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되는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출산 후 몸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항목이다. 求嗣門에 대하여 '여성에게 질병이 없다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두었다.'²²⁾라고 하여 아이를 갖는 이론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구성의 특징은 나열식으로 송나라 이전 시기에 나온 의학서들 대부분의 목차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나열식 목차 구성에서도 8강목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에 맞게 중요한 소항목들의 순서를 달리 배치하고 있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구성에서 綱目的 순서와 각각 8綱目的 구절 설명은 『신편부인대전양방』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진자명이 調經門을 첫 항목으로 선택하고 衆疾門과 求嗣門을 그 다음 차례로 편성한 것은 여성 질병에 대한 그의 의학적 관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한다. 진자명이 가장 많이 주 모델로 삼은 인용문헌 중에서 隋나라 巢元方의 『諸病源候論』 부인문 목차에서는 월경관련 항목은 일반 질병에 속해 있으며, 중풍항목보다도 뒤에 순서한다. 宋나라 『太平聖惠方』 또한 가장 처음 중풍항목으로 시작하여 월경항목들을 일반 질병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서적과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구성의 차이는 진자명의 의학적 관점과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째, 진자명의 『신편부인대전양방』 목차순서가 調經門

18) 진자명 저,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역(2003), 49.

19) '經脈不調, 衆疾生焉, 故以次之'

20) 『婦人大全良方』 衆疾門 極一方總論第一. "但三十六病, 產蓐一門, 男子無之. 其餘外傷風暑寒濕, 內積喜怒憂思, 飲食房勞虛實寒熱, 悉與丈夫一同也. 依源治療, 可得而知之."

21) 진자명 저,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역(2003), 49.

22) '衆疾既無, 須知求嗣, 故以次之'

다음에 衆疾門을 두어 앞의 두 서적의 목차구성과 차이는 월경을 여성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포함시켰던 과거의 인식에서 여성의 특수한 특징을 책의 편제구성에 반영한 것이라 여긴다. 물론 진자명 이전의 의학자들이 여성의 특수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서적의 목차구성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지 않고 책을 구성하였다. 당시 의학의 표준이었던 관찬서에서조차도 여성의 특수 질병을 ‘부인문’이라는 綱門에 포함하여 일반항목화하였다. 이에 반해 진자명은 그러한 여성의 항목들을 인과·선후관계를 통하여 分門하여 분류하고 綱目を 재배치하였다.

첫째, 조경문의 구절인 ‘凡醫婦人 先須調經 故以爲初’는 여성질병을 다스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調經’이며, 대부분의 부인 병증·치법에 대한 견해였다. 또한 조경은 임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첫 강목에 배치하였다. 둘째, 중질문에 관한 구절 ‘經脈不調 衆疾生焉’은 여성 질병[衆疾]의 배경과 원인을 ‘經脈不調’에서 찾고 있다. 즉, 진자명은 여성질병의 원인을 상당부분 월경과 결부시켰다. 여성병의 전제 조건은 ‘조경’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衆疾]에 대한 치법 또한 가장 먼저 ‘조경’을 잘 다스린 후에 가능하므로 ‘조경문’ 다음에 순서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진자명의 병증치법 논리라 할 수 있다. 의학자들은 개인이 학습하고, 전수받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마다 병증치법의 기준과 논리를 세운다. 진자명의 경우는 부인병의 모든 단서는 ‘조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분화된 강목과 순서가 나오게 되었고 강목에 여러 부인병들을 분류 소속시켰던 것이다. 셋째, 求嗣門에서 여성이 질병이 없으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진자명의 이러한 편제구성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구절은 여성의 후손 잉태이다. 求嗣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月經이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첫 綱目 ‘調經門’은 자손을 잉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調經·衆疾·求嗣·胎教·妊娠·坐月·產難·產後門의 순서에 깔린 진자명의 의도는 첫 번째는 求嗣이며 그 다음은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건강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신편부인대전양방』 이전 의서의 부인과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나열식 구조로 부인에 관한 모든 항목들의 총집합이었다면 진자명의 『신편

부인대전양방』은 목적이 분명한 체계화된 綱目別 항목구성이라 할 수 있다.

송대까지는 부인의 일반질병항목과 調經항목(月經·胞)은 분류없이 나열하였지만, 진자명은 여성의 일반질병을 ‘調經’과 ‘衆疾’로 세분화하여 여성의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분화도 단편 분류가 아닌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여성의 질병에 있어서 ‘調經’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자명의 목차구성은 송나라까지의 부인과 병종의 논리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3.2 『新編婦人大全良方』의 수용

陳自明의 『新編婦人大全良方』은 조선에서 婦人科 질병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오랫동안 의학자들이 참고한 婦人科 전문서이다.²³⁾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의 기사와 『大典會通』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취재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1484년(성종 15)에 만든 갑진자로 인쇄되어 의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보감』의 부인과 항목에서 주된 인용 문헌으로 언급하고 있어 『동의보감』이 간행되기 전까지는 醫學者들 사이에서 婦人科 전문서로서 중요한 참고 문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준이 『동의보감』을 간행하면서 참고 인용한 것 이외에는, 그 이후에 다른 사료나 의서에서 『신편부인대전양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간혹 법전에 명시된 취재과목 내용을 인용한 문집에 언급되어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1, 2건에 그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이 의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나라 의서들이 수입되어 조선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동의보감』이 조선에서 최고의 의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의보감』 간행 이후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이용빈도와 그 위상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23) 한 예로 元나라 危易林이 지은 『世醫得效方』의 婦人門만을 독립시켜 목판으로 간행한 책의 서명이 ‘대전부인양방’이다.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목판본으로 남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조선 후기까지의 계속 법전에 명시되었던 의과 취재과목이었다는 점이다. 1776년(영조 52) 『승정원일기』 내용에 의하면 1746년(영조 22) 『續大典』을 반포 시행하면서 『부인대전양방』이 다른 의서 10책과 함께 취재과목에서 제외된다.²⁴⁾ 『동의보감』 간행 이후로 명나라 의학의 흐름으로 완전 전환된 조선 의학의 분위기가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을 편찬할 때 법령을 개정하면서 반영된 것이다.

진자명의 『신편부인대전양방』이 『동의보감』이 간행되고 나서도 조선후기까지 婦人科의 대표적인 참고 서적이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적어도 『동의보감』 이전까지는 婦人科에서는 중요한 참고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키 사카에도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서 『신편부인대전양방』은 조선초기와 중기에 활용된 부인과 의서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⁵⁾

4. 조선 婦人科 醫書 체제 영향과 변화

4.1 15세기 조선 의서에 드러난 『新編婦人大全良方』의 영향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향약연구는 조선시대에도 계승 발전되었다. 세종대에 와서는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를 간행하여 조선 의학의 수준을 끌어올려 향약이라는 조선 의학을 완성한 시기였다. 이 두 종합의서는 그러한 결과를 담아낸 관찬서이면서 조선전기 대표적인 조선 의학서이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는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이 간행되기 전까지 조선 의학의 중심에 자리

24) 영조 때 『續大典』에서 의학분야 취재과목을 재편성하면서 『신편부인대전양방』을 비롯해서 『得效方』·『瘡疹集』·『胎產集』·『救急方』·『和劑方』 6冊을 취재과목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素問』·『醫學正傳』·『東垣十書』의 3冊을 新增하고 있다. 『속대전』에서 初試·覆試 및 取才法 항목이 수정된다.

25) 조선 중기에 간행된 향약 의서에 인용된 『부인대전양방』은 명나라본이다. 미키 사카에는 『부인대전양방』이 명나라본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두 의서의 부인과 체제를 『신편부인대전양방』과 비교 검토하는 것은 조선전기 부인과 의학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부인과에 영향을 미친 문헌은 『제병원후론』, 『성해방』, 『신편부인대전양방』이지만 부인과 목차 구성에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의 형식 수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부인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신편부인대전양방』과 15세기 대표 향약서인 『향약집성방』·『의방유취』의 비교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1.1 『鄉藥集成方』 婦人科 항목의 특징

『鄉藥集成方』²⁶⁾은 85卷 30冊으로 모든 질병을 57大綱門으로 나누고 그 아래 959조의 소항목을 나누어 각 강문과 조목에 해당되는 병론과 처방들을 出典과 함께 낱낱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²⁷⁾ 부인과 목차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의 8綱目을 확장하여 10綱門으로 분류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의 調經門은 崩漏門²⁸⁾이라는 강문을 추가하여 소항목들을 다시 분류하였고, 衆疾門의 경우는 婦人諸病門으로 용어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女陰門이라는 강문을 추가하여 소항목들을 더 세분화하였다. 妊娠門도 妊娠疾病門이라 하여 용어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은 임신문의 특성을 『신편부인대전양방』

26) 중국의 여러 의서와 우리나라의 향약의서 등을 참고하여 兪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이 1431년(세종 13) 가을부터 편집에 들어가 2년만인 1433년(세종 15) 6월에 완성한 우리 고유의 향약의서이다. 완질본은 일본 동양문고에 보존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규장각, 한독의약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허준연구소에 일부본만이 남아 있다.

27) 김두중(1998), 216.

28) 『향약집성방』의 부인과 목차는 신연활자본을 영인본을 참고하였다. 인조 때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의 목차를 보면 부인과 목차에서 강목분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서지』 『향약집성방』조의 목차에도 ‘부인제병문·태교문·구사문·좌월문·산난문·산후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경문·붕루문·여음문’이 ‘부인제병문’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때 간행된 판본의 목차구성에서도 강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향약집성방』의 초간본과 성종 때 간행된 판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신연활자 영인본을 기준하였다.

보다 좀 더 잘 드러내고 있다.²⁹⁾ 이렇듯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강문을 세분화시켜서 기존의 부인과 목차구성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강문의 세분화와 용어변화는 고유한 여성질병과 일반질병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향약집성방』의 부인과 목차는 부인과 전문서 『신편부인대전양방』의 8강목 구성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목차이며, 綱門 용어의 변화와 추가를 통해 목록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이용자가 필요항목을 찾기 쉽게 편성하였다.

<표 6> 婦人門 목차 비교

鄉藥集成方	新編婦人大全良方(甲辰字本)
■ 調經門	■ 調經門
■ 崩漏門	
■ 婦人諸病門	■ 衆疾門
■ 女陰門	
■ 求嗣門	■ 求嗣門
■ 胎教門	■ 胎教門
■ 妊娠疾病門	■ 妊娠門
■ 坐月門	■ 坐月門
■ 產難門	■ 產難門
■ 產後門	■ 產後門

4.1.2 『醫方類聚』 婦人科 항목의 특징

1445년(세종 27)에 완성한³⁰⁾ 『醫方類聚』는 처음 365권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후 다시 刪削校正하여 총 266권 264책으로 정리 축소되었다. 그러나 곧 인쇄되지 못하고, 1477년(성종 8) 5월 韓繼禧·任元濬 등이 30질을 인쇄 출판하여, 內醫院·典醫監·惠民署·活人署 등 관계 관아에 반포하였다.³¹⁾ 모든 病症들을 91종의

29) 『鄉藥集成方』의 妊娠疾病門은 『新編婦人大全良方』 妊娠門의 句節의 용어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여긴다. ‘胎教已明, 須知妊娠疾病, 故以次之’라 하여 ‘妊娠疾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0) 『世宗實錄』 110卷, 世宗 27年(1445) 10月 27日(戊辰).

大綱門으로 나누고, 각 문에는 먼저 그 문에 해당되는 病論을 들고, 藥方들을 그 出典 연대순에 따라 열거하였다.³²⁾ 婦人門은 266卷 중에서 총 33卷으로 卷206~238에 해당한다. <표 7>에서는 부인과 항목 목차를 간략하게 목록화하였다.

<표 7> 『醫方類聚』의 부인문 목차

調經 通治(附雜病) 諸風 諸虛 勞瘵 傷寒 咳嗽(附痰飲 喘滿) 嘔吐(附翻胃) 霍亂 血病	積聚 頭痛 心腹痛(附脇痛 臍瘡 小腹滿痛 胃心痛) 腰脚(附臂痛 項筋強痛) 脚氣 大小便 諸淋 諸痢 痔漏(附脫肛) 乳癰(附諸瘡)	水腫 陰腫 求嗣 胎教 妊娠 坐月 難產(附橫逆生 子死腹中 胎死腹中) 產後
--	---	--

김신근, 『한의학서고』

『醫方類聚』의 목차구성의 특징은 『신편부인대전양방』의 8綱目 형식을 확장한 28綱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목 아래에 인용서목명을 소속시켰고, 인용서목명 아래에 질병 소항목을 소속시키는 大門 - 綱門 - 引用書 - 引用項目별론과 처방을 수록하였다.³³⁾ 즉 引用書名을 질병항목[引用項目]의 상위개념으로 분류한 구성체제이다. 이 때문에 강목 아래에 인용서목별로 질병소항목을 나열한 방식은 소항목명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항목명이 중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방유취』의 인용서목별 소항목 모음은 의학사전의 성격에 맞게 특징을 잘 드러내는 목차구성이라 할 수 있다.

『醫方類聚』의 부인과 목차구성은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의방유취』만의 특성

31) 현재 국내에는 1997년에 발견된 단 한 권이 한독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로 지정되었다. 일본에는 임진왜란 때 약탈해간 1질이 전해지는데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었으며, 266卷 중 14卷이 결손되어 현재는 252卷이 보관되어 있다. 김기욱 외, 『韓醫學通史』(2006), 205.

32) 김두중(1998), 221-222.

33) 안상우(2000), 33.

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의방유취』의 부인과 강문들을 보면 調經·求嗣·胎教·妊娠·坐月·產難·產後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의 강목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衆疾門의 소항목들은 ‘중질문’이라는 綱門에 소항목들을 소속시키지 않고 일반질병명 강문 아래에 소항목들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표 7>에서 굵게 표시된 항목들, 즉 ‘通治~陰腫’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질문의 소항목들을 21개 강문으로 일반화한 특성은 부인과는 범주를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의학사전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질병일반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의방유취』에서 나타난 목차구성의 특징과 목적 또한 여성질병의 일반화를 염두해 둔 목차 변화라 할 수 있다. 비록 여성질병을 부인문이라는 분야에 모두 수집하여 강목별로 분류한 방식은 중국의 전통방식 목차 형식과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구성 틀에서 벗어난 체제는 아니다. 즉, 『의방유취』라는 의학서를 편찬하면서 『신편부인대전양방』의 전통방식의 목차구성을 수용하고, 의학사전의 성격을 반영하여 조선 의학의 특징을 보여준 목차구성이다.

요컨대, 15세기에 간행된 의학서는 『향약집성방』·『의방유취』 2종이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은 두 의서의 부인과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 송나라 개인 저술서이다. 이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이 기존의 목차구성을 다시 정리하여 8강목으로 분류 세분화하여 여성의 질병에 대한 특징과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이런 부인전문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다시 조선의 의학자들의 경험과 논리로 다시 목차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4.2 16세기 조선 부인과의 변화와 조선의 독자적 목차구성

4.2.1 『醫林撮要』의 婦人科 항목의 변화

『醫林撮要』는 『東醫寶鑑』 이전에 조선에서 간행된 의서로서 명나라 의학을 적극 수용한 종합의서로 간행시기와 저자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다.³⁴⁾

34) 『동의보감』 권1 歷代醫方書目에 鄭敬先이 撰하고 楊禮壽가 校正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기

판본 또한 다양하게 전해지는데 원간본(8권본), 『醫林撮要續集』 2卷 2册, 증보판(13권본)이 있다.³⁵⁾

『의림촬요』의 전체적인 목차구성은 질병위주의 전통방식인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부인대전양방적인 체제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명나라 의서의 영향으로 『의학정전』·『의학입문』·『만병회춘』의 목차체제를 종합하여 구성하여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림촬요』의 목차구성은 『의학정전』의 부인과 체제의 영향을 받았다.

<표 8> 『醫林撮要』 부인문 목차

婦人門 百十四		
經候門	附崩漏帶下	鍼灸法
求嗣方 百十五		相女法, 脉法, 灸法
胎前門上 百十六	附轉女爲男法	食忌, 妊娠藥石禁忌, 臨產須知, 難產, 妊娠橫逆生, 胞衣不下, 妊娠食治, 無忌, 禁忌內無毒可食, 驗胎法, 轉女爲男法
胎前門下	子淋, 子嗽, 子腫, 子煩, 子瘡, 子懸, 子癰, 子痢, 感寒	
產後門百十七	附乳汁不通	
	雜病	臨產豫備藥物, 安產室·安產方位圖, 安產藏胎衣吉方, 催生符, 體玄子借地法, 月遊胎殺所在, 日遊胎殺所在, 房中日遊神所在, 推婦人行年法, 小兒初生救急

조선에서 명나라 의학이 주된 의학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의림촬요』의 부인과 목차구성에 수용되어 명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의림촬요』의

때문에 대체로는 이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김두중(1998), 298-299. 저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김두중의 『韓國醫學史』를 기준으로 삼는다.

35) 초기 8卷本은 1589~1592년(선조 22~25)에 만들어졌고, 허균이 『東醫寶鑑』의 저술에 이 초기본을 인용하였다(김홍균(2000), 53쪽). 현재 8권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醫林撮要續集』은 2卷 2册 중에서 上卷은 실전되고 下卷만이 전해지고 있다. 『의림촬요속집』은 원간본(8권본)과 후대 13권본의 편찬과정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이다(안상우, “『의림촬요』의 판본과 최근 연구성과,”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0(2004), 36).

부인과 내용도 月經, 胎前, 產後로 『신편부인대전양방』에 비해 綱目내용이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인과 영역의 변화는 부인과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 여성 고유의 질병·산전산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병들로 정리되고 단순화된 것이다. 따라서 부인과 분야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부인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집중시켜 발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의림촬요』의 목차구성은 經候門, 胎前門, 產後門³⁶⁾으로 간략화되어 있고, 경후문에는 崩漏와 帶下라는 여성만의 질병을 첨부하였다. 經候門과 胎前門 사이에 求嗣方을 추가하여 첨부하고 있다. 이것은 求嗣의 전제조건이 ‘先調經脈’이기 때문에 경후문 뒤에 편성한 것이다. 胎前門上·下는 胎教·妊娠·坐月門의 내용으로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내용보다 질병부분에서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胎前門下의 子淋, 子嗽, 子腫, 子煩 등의 용어들은 임신 중에 임신부에게서만 나타는 증상이다. 產後門 내용에서 일부 질병항목은 일반화를 통해 정리되었으며, 坐月門의 일부항목들을 첨부하여 출산부분을 보충, 강화하였다. 좌월문은 출산직전의 출산준비에 필요한 항목들이나 금기사항에 관한 출산관련 항목이지만 질병이 아니므로 產後門의 가장 뒤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의림촬요』 부인과 인용문헌과 인용횟수를 조사하였다.

『醫學正傳』은 인용횟수가 93건(전체 21%)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得效方』은 65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婦人良方』과 『入門』³⁷⁾은 39건, 28건으로 전체 15%를 차지한다. 인용횟수의 수치로 보면 『신편부인대전양방』이 『의림촬요』 부인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의림촬요』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아니지만 『신편부인대전양방』을 인용참고한 『의학정전』과 『세의득효방』을 가장 중점적으로 인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인양방』과 부인대전양방을 주로 참고한 『의학입문』을 차례로 인용하였다. 이것은

36) 『의림촬요』 부인문 첫머리에는 ‘產育門’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에는 ‘產後門’이라 표현하고 있다.

37) 『의학입문』의 부인과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내용을 위주로 참고하였기 때문에 인용횟수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신편부인대전양방』이 간접적으로 『의림촬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표 9> 『醫林撮要』 婦人門 인용문헌

正傳(93), 得效方(65), 婦人良方(39), 入門(28), 局方(27), 和劑(2), 玉機(22), 醫鑑(21), 丹心(17), 丹溪方(2), 附餘(?) (11), 綱目(11), 醫方集略(9), 東垣(9), 回春(7), 集成方(7), 廣嗣要語(5), 聖惠方(5), 本事(4), 袖珍(3), 經驗救急方(3), 千金(3), 千金翼(1), 嚴氏方(2), 拔粹(2), 脈經(2), 活人心方(2), 海藏(2), 仲景(2), 金匱方(1), 產寶方(2), 祖傳經驗(2), 經驗救急方(1), 聖濟總錄(1), 纂圖(1), 元素(1), 雲岐(1), 濟陰(1), 保命(1), 本草(1), 瑞竹(1), 資生(1), 辛酉年出來新方(1), 初虞世方(1), 村家救急方(1), 直指(1), 永類(1), 集驗方(1), 簡易方(1), 斷產方(1), 易老(1), 濟生(1), 三因(1), 御藥方(1), 海上方(1), 謹甫(?) (1), 魯試極驗(?) (1) / 총 436건

熊宗立과 薛己는 『신편부인대전양방』을 補遺하고 校注한 명나라 의학자들이 다. 『의림촬요』의 『歷代醫學姓氏』 儒醫편에서 熊宗립이 『부인양방』을 補遺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³⁸⁾ 설기는 『外臺秘要』의 저자로 언급하고³⁹⁾ 있다. 이미 조선에서는 명나라 의학의 영향이 커지면서 송나라 부인과 전문서인 『신편부인대전양방』도 명의학자들의 의론이 추가된 명나라 간본을 참고하고 있었다.

비록 『의림촬요』에서는 목차구성이나 인용문헌에서 『의학정전』과 『세의득효방』 다음으로 『신편부인대전양방』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의림촬요』는 『향약집성방』·『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을 이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조선 고유의 의학서이다. 또한 조선의 중국의학이 송나라 의학에서 명나라 의학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동의보감』의 편찬에 큰 영향을 끼친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38) “熊宗立，號道軒，國朝建陽人，從劉刻學，兼通陰陽醫卜之術，註解難經·脈訣，撰藥性賦，補遺集婦人良方”

39) “薛己，字新甫，號立齋，吳郡人，家世名醫，至公盡會諸家之法，嘉靖時官南京太醫院院使，著外科秘要”

4.2.2 『東醫寶鑑』의 婦人科 항목 변화의 형성

『東醫寶鑑』은 1610년 허준이 25권 25책으로 지은 종합의서이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시상황에서 완성된 의서이며, 조선시대의 의학사를 구분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동의보감』 부인과에서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또한 송나라 원본이 아니라 명나라 熊宗立이 補遺한 『婦人良方補遺大全』을 인용하고 있다. 명나라 때 熊宗立의 보유본과 薛己의 교주본이 있다.⁴⁰⁾ 허준이 翁宗립의 보유본을 인용한 이유는 설기의 교주본은 원본을 대량 삭제 증보하였고, 보유본은 진자명의 원문을 보존하면서 補遺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준은 진자명의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나라의 의학을 보충한 翁宗립본을 참고 인용한 것이다.

기존의서의 경우 婦人科는 여성의 모든 질병을 다루고 있거나 여성 고유의 질병과 產婦人科 관련 항목만을 다루고 있다. 반면 『동의보감』은 產婦人科 관련 항목만을 모아 놓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산부인과 이외의 일반질병과 월경이라는 여성 고유의 질병은 몸이라는 形象을 따른 일반항목으로 분류하여 저술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남성과 대등하게 치료대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그 배경에는 『동의보감』은 ‘몸을 중심으로 보는 의학’을 확립하였기 때문이다.⁴¹⁾ 부인과 영역을 產科 영역으로 과감하게 좁히게 되는 또 하나의 동기는 『의림촬요』와 명나라 의서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의림촬요』의 經候門에서는 ‘三十六病, 產蓐一門, 男子無之’라는 전통의학론⁴²⁾과 『의학입문』의 ‘婦人之病, 與男無異. 經絡氣血, 只分於胞絡’ 이론을 기반으로 부인과 영역을 명나라 의학서에서 설정한 범주보다 더욱 강화시켰다. 『동의보감』은 『醫學正傳』·『醫學入門』·『萬病回春』의 부인과항목 중에서 調經항목들을 ‘胞’라는 항목으로 편입하여 부인과 영역을 產科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동의보감』을 편집했던

40) 김기욱 외, 『韓醫學通史』(2006), 46.

41) 신동원(2001), 197.

42) 홍란영(2015), 72-74.

조선의 의학자들은 명나라의학과 전통의학론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부인과 영역을 産科 범주로 재설정할 수 있었다.

‘婦人’이라는 綱門은 15세기 의학서에서는 여성의 모든 질병을 대표하는 개념이었고, 16세기에 와서 『의림촬요』에서는 調經과 産科영역이었지만 『동의보감』의 ‘婦人’이라는 綱門은 産科영역만을 의미한다.

<표 10> 『東醫寶鑑』 婦人科 관련 항목의 세부 목차

<p>雜病篇 - 婦人</p> <p>求嗣, 相女法, 脈法, 胎孕, 陰陽交合避忌, 十月養胎, 妊娠脈, 驗胎法, 辨男女法, 雙胎品胎, 轉女爲男法, 惡阻, 妊娠禁忌, 飲食禁忌, 藥物禁忌, 妊娠將理法, 胎漏胎動, 半產, 察色驗胎生死, 欲產候, 保產, 瘦胎令易產, 十產候, 交骨不開難產, 催生宜用滑利藥, 穢法, 外貼法, 下死胎, 胞衣不下, 產前諸證-子癩·子煩·子腫·子淋·子嗽·子痢·子瘡·子懸·感寒·孕婦不語·兒在腹中哭·孕婦腹中鍾鳴, 產後諸證-兒枕痛·血暈·血崩·衄血·喘嗽·咳逆·產後不語·產後見鬼譫安·產後發熱·產後乳懸證 詳見乳部·產後陰脫·鬱冒·產後風痺·產後頭痛·產後心腹腰脇痛·產後嘔逆·產後淋瀝遺尿·產後泄痢·產後大便秘結·產後浮腫·產後脈法·產後治法·產後虛勞·過月不產·妊娠通治·斷產·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藏燥證·臨產豫備藥物·婦人雜病, 安產室, 安產藏胎衣吉方, 體玄子借地法, 月遊胎殺所在, 日遊胎殺所在, 方中日遊神所在, 推婦人行年法</p>

여성에 관한 질병과 치료법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의 각 장부, 각 질병 항목 아래 질병의 일반화를 시키고 있다. 특히 胞라는 奇恒臟腑와 前陰항목에 여성의 고유의 생리현상도 편입시켜 장부병증론으로 일반화시켰다. 이러한 특성은 미키 사카에도 “『東醫寶鑑』에는 婦人科 질환은 일반 질환에 편입되어 있어 월경은 內景篇 胞항목에, 생식기 질환은 外形篇 前陰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질환일지라도 產前·產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또 婦人門에 수록되어 있다”⁴³⁾고 하였다. 『동의보감』의 ‘婦人’門에서는 단지 산부인과에 관련된 항목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산부인과 항목들은 常病證이 아닌 특수 상황에 발생하는 雜病으로 분류되었다.

43) 미키 사카에(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東京: 思文閣, 1991).

<표 11> 『東醫寶鑑』 婦人門 인용문헌

入門(145), 良方(79), 正傳〔良方〕(6), 丹心(75), 正傳(58), 本草(53/단방 38), 得效(50), 醫鑿(29), 局方(27), 回春(24), 綱目(22), 脈經(18), 仲景(10), 諸方(10), 本事(10), 三因(9), 保命(9), 東垣(7), 種杏(6), 海藏(6), 俗方(5), 雲岐(5), 廣嗣(4), 直指(4), 易老(4), 聖惠(3), 產寶(3), 千金(3), 丹溪(3), 內經(2), 脈訣(2), 拔粹(2), 類聚(2), 濟生(2), 寶鑿(2), 再生(2), 醫說(2), 御院(1), 易簡(1), 集略(1), 方廣(1), 產書(1), 四要(1), 活人(1), 湯液(1), 新書(1), 簡珍(1), 玉機(1), 濟陰(1), 田氏方(1), 湯氏(1), 十三方(1), 肘後(1), 甲乙(1), 資生(1) / 총 723건

『동의보감』 부인과에서 『의학입문』은 145건을 인용하여 주된 참고서였으며, ‘良方’이라 하여 『부인대전양방』은 79건을 참고하고 있어 『의학입문』보다는 적게 인용되었다.⁴⁴⁾ 하지만 『醫學入門』 集例를 보면 ‘女科以婦人良方爲主及參名家’⁴⁵⁾라고 하여 부인과는 『부인양방』을 위주로 다른 의가들의 의론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內經篇 歷代醫家에서 ‘婦人良方’은 응종립이 지은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부인과에서는 『의학입문』과 진자명의 원간본은 아니지만 응종립이 補遺한 『婦人良方補遺大全』을 위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처럼 직접적으로 『신편부인대전양방』의 목차구성과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편부인대전양방』은 『동의보감』에서도 『의림촬요』와 같이 熊宗立의 補遺本으로 인용되면서 부인과 영역에서 주요한 병론과 처방에서 재조명한

44) 한의학연구원·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공식학술행사 제1회 『동의보감』 국제컨퍼런스 자료집』(2013. 10), SAMSUNG HRD CENTER(삼성산청연수소), 78.

45) 『編註醫學入門』 集例. 『婦人良方』은 진자명의 원간본인지, 응종립의 보유본인지, 설입제의 교주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歷代醫學姓氏’에서 熊宗立은 ‘號道軒 國朝建陽人. 從劉劔學兼通陰陽醫卜之術. 註解難經脈訣, 撰藥性賦補遺, 集婦人良方.’이라 설명하고 있고, 薛己는 ‘字新甫 號立齋 吳郡人. 家世明醫 至公盡會諸家之法. 嘉靖時 官南京太醫院院使. 著外科樞要.’라 하였다. 『부인대전양방』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응종립의 보유본을 언급하고 있고, 설기의 교주본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의학입문』의 ‘歷代醫學姓氏’에서는 陳自明은 빠져 있기 때문에 集例에서 『부인양방』은 응종립의 보유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요한 참고서였다.

5. 結 論

조선 부인과 체제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 진자명의 『新編婦人大全良方』은 부인과의 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종 때 갑진자로 간행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대전회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陳自明의 원각본은 중국·한국·일본에 남아있으며, 중국의 원각본을 底本으로 한 조선 갑진자본은 한국과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갑진자본을 필사한 사본 또한 일본과 대만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의 元나라 勤有書堂本은 가장 오래되었지만 내용이 결락된 판본이다. 한국에 소장된 조선의 갑진자본들도 내용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결락본이었다. 일본에는 宮內廳 書陵部와 東洋文庫, 大阪(오사카)府立圖書館에 남아 있다. 서릉부분은 中宗~明宗연간에 간행된 완질본이며, 東洋文庫本은 16~20권이 결락되어 있지만 성종 때 갑진자가 만들어진 초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기 甲辰字本 동양문고본과 이후 중간된 甲辰字本 서릉부분은 비록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만 조선화자로 간행된 진자명의 원각본이며, 『부인대전양방』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 자료로서 그 의미가 동아시아적으로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新編婦人大全良方』의 8綱目은 婦人科라는 의학적 범주에서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구성한 진자명의 독창적 의학논리를 바탕으로 목차를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종합의서의 부인과 체제와 비교 검토하여, 『新編婦人大全良方』이 조선 의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15세기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의 부인과 목차구성은 『新編婦人大全良方』의 8綱目(調經門·衆疾門·求嗣門·胎教門·妊娠門·坐月門·產難門·產後門) 체제와 내용을 적극 수용하였다. 16세기 말에 간행된 종합의서 『醫林撮要』에서는 명나라 의서 『醫學正傳』의 영향이 두드러지지만, 내용 참고에서는 『醫學正傳』을

중심으로 『新編婦人大全良方』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부인과는 독자적 목차구성의 특징을 보이면서 『의학입문』의 의론과 처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醫學入門』의 부인과에 인용한 주된 문헌은 『부인양방』이라 밝히고 있고 『동의보감』에서 참고한 인용문헌인 『부인양방』은 명나라 熊宗立이 補遺한 『婦人良方補遺大全』本을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자명의 『신편부인대전양방』은 조선 부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부인과 전문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갑진자본 『新編婦人大全良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본.
『鄉藥集成方』. 영인본. 행림출판사, 1977.
『醫方類聚』.
『醫林撮要』.
『東醫寶鑑』.
『大典會通』.
- 김기욱 외. 『강좌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김기욱 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87집(1999).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婦人大全良方』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5권 4호(2002).
김두중. 『韓醫學史』. 서울: 탐구당, 1998.
김신근. 『한의학서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제35권(2006. 12). 183-229.
김 호. “『東醫寶鑑』 編纂의 歷史的 背景과 醫學論.”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0.

미키 사카에(三木榮). 『朝鮮醫書誌』. 영인본. 學術圖書刊行會, 昭和31[1956], 법
인문화사.

미키 사카에(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 思文閣, 1991.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안상우. “『醫林撮要』의 板本과 최근 연구 성과.”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0권
1호(2004).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0.

劉 洋. “『婦人大全良方』의 文獻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國中醫研究院中國醫史
文獻研究所. 2004.

町泉壽郎. “曲直瀬養安院家と朝鮮本醫書.” 『日本思想文化研究』 第2卷 第1号
(2009).

中國國家圖書館 編. 『第一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第3冊. 北京: 國家圖書館
出版社, 2008.

진자명 저,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역. 『부인대전양방』. 서울: 광산출판사, 2003.

眞柳誠・王鐵策. “日本に現存する中國散逸古医籍の分析”; 馬繼興・眞柳誠・
鄭金生・王鐵策 『日本現存中國散逸古医籍の傳承史研究利用和發表
(第二報)』 5-15頁(1998).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www.kiom.re.kr>>.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riks>>.

일본 궁내청 서릉부 도서료문고. <<http://toshoryo.kunaicho.go.jp>>.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http://www.digital.archives.go.jp>>.

書誌學研究 第62輯(2015. 6)

일본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 <<http://www.toyo-bunko.or.jp>>.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충남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cnu.ac.kr>>.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